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스트레스,
의사소통, 가족응집성·적응성의 비교연구
A Study of Husband's Stress,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tion in Families
Living Apart and Living Together

홍 상 옥 · 배 옥 현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Hong, Sang Ook · Bae, Ok Hyun*
Dept.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husband's stress,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tion which contribute to the internal structure of conjugal understanding between families living apart from one another and those living together.

The data for analysis was derived from questionnaires. 172 husbands from families living apart and 185 husbands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The data was treated by spss pc* program and the methods of analysis were frequency, t-test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Husband's stress in conjugal understanding in families living apart was higher than those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2. Between the husbands whose families are living apart and those who are living togeth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ort levels to overcome stress,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tion and communication needs for conjugal understanding.

3. Husbands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communicat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ir stress levels.

4. Low stress levels led to high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tion in both cases.

5. High communication levels led to high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tion in both cases.

I. 서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족형태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가족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은 남편의 직장문제, 부인의 직장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시

부모 부양문제, 생활근거지, 주택문제 등의 이유로 사회구조에 걸맞게 생계를 위해서 또는 편의성을 위해서 가족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구주분리가족에 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외에서도 꽤 드물다. Adams(1984)가 남편의 부재 유형 6가지 중의 하나로 [직업상의 요구]를 들고 있으며, Gerstel(1977)이나 Gross(1980)가 [통근결혼] 또는 [장거리 결혼]이라는 용어로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취업한 맞벌이 부부들이 일주일에 3-4일을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日本에서는 1980년대 들어 오면서 가구주분리와 비슷한 "單身赴任"이 대두되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日本 勞務行政研究所(1991)에 의하면 전체 轉勤者數중 單身赴任率이 1986년 이후 30%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문제점 및 대책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구주분리가족에 대해 통계적 숫자로 밝혀진 것은 없으며, 1990년 공세권 등(1990)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가족원 일부가 출타한 가구가 약 28%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분리에 대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으나 이호재(1979), 정기선(1985)은 장기적 별거의 해외취업자가족을, 송성자(1987)는 직장의 위치로 인하여 별거하는 별거가족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광규(1990)는 남자의 직장이동으로 인해서 가족원과 별거하는 가족을 분거가족이라 하였으며, 박숙자(1991)는 남편의 직장생활, 자녀의 교육문제로 비동거가족유형을 취하는 비동거가족의 출현과 이들 가족이 겪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가족분리 가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가구주분리가족이란 가구주인 남편이 자택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혼자 근무하는 경우로, 다른 가족원과 분리되어 생활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가구주분리가족은 법적, 규범적으로는 분가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측면에서 세대분리에 따라 생활공동체, 가족공동체로서의 연대감과 안정성이 약화되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 및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상대면적

인 파트너의 결여,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내에서의 자녀의 사회화 교육의 결여, 이중생활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생활전반의 어려움이 남편, 아내, 자녀 등 가족전체에 문제점을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분리가족의 아내는 가구주분리 후 가사의 수행이나 자녀의 양육, 교육의 일체를 혼자 담당해야 하는 중압감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부담과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은 매우 크게 되며(홍:1997), 남편 또한 가족과 떨어져 아내 부재의 생활스타일을 확립해 가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주분리가족 아내의 연구(홍:1997)에 이어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설정하였으며, 가구주분리라는 외적분리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스트레스요인을 설정하여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의 스트레스정도, 부부간의 의사소통정도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정도, 스트레스정도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정도에 따른 부부간의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일반가족 가구주와의 비교를 통하여 가구주의 스트레스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가족체계의 두 차원인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가구주분리라는 외적분리가 가족내부의 내적분리로까지 이어지는가를 살펴 가구주분리가족의 문제파악 및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료로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구주분리가족

가구주분리가족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취업한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은 구조적 결손을 가진 가족과는 달리 가족관계나 성원의 정신면에 치중하는 기능적 결손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족의 출현은 현대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압력의 적응이라는

것에서 나온 현상이라 볼 수 있다(Gerster, 1977; Gross, 1980; Hester & Dickerson, 1981).

이효재(1979)는 우리 나라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려한 수출산업으로 인한 인력전출과 직업이동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특히 해외취업으로 인한 장기적 별거는 가정불화의 원인이며 결혼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광규(1991)는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여러 형태의 비정상적 구성을 갖는 가족의 하나로 분거가족을 들고 있는데, 분거가족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면서 생활하는 가족으로 특히 남자의 직장이동으로 인한 가족이라고 하였다. 박숙자(1991)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남편의 직장생활,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한 비동거가족의 출현과 이들 가족들이 겪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박숙자와 김태현(1992)은 비동거가족과 일반부부의 결혼만족도의 비교연구에서 비동거가족의 부인들이 일반부부의 아내보다 약간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부부관계를 도구적, 수단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비동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홍상욱(1994, 1995, 1997)은 가구주인 남편이 자택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다른 가족원과 분리되어 생활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가족을 가구주분리가족이라고 정의하여, 가구주분리가족아내는 가구주분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외서는 일본에서 가구주분리와 비슷한 단신부임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신부임가족이란 노동자인 남편이 자택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에 가족 모두가 이주하지 않고 남편 혼자 근무지로 부임하는 것을 의미한다(田中左子). 鈴木之史(1986)는 단신부임가족의 아내와 일반가족의 아내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여 단신부임가족의 아내가 일반가족의 아내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만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松岡英子(1987)는 단신부임에 의해 남아 있는 가족, 주로 아내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생활을 구조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아내에게 초점을 두어 McCubbin의 Double ABC-X모델의 주요개념을 이용하여 가족스트레스론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笠原敏彦(1988)는 단신부임자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히스테리, 신경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을 들고, 단신부임자의 아내에게는 우울상태가 나타나고 아이들은 등교거부, 강박상태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田中佐子(1991)는 단신부임의 발생 요인으로 가족의 개인적 사정뿐만 아니라 직업구조와 가족관계를 언급하고 단신부임이 가족구성원들의 정신상태와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단신부임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 가족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연구가 여러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가족의 위기나 긴장을 다루는 가족 병리학이나 가족 사회학에서 스트레스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건강문제이고 일의 생산성에 관한 문제이며, 가족에 있어서는 가족의 통합과 가족의 재생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즉 스트레스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일을 혼란시키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구조와 경제영역을 왜하시킬 수도 있다(김정옥, 1990).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어떤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떤 자원으로 어떤 관념을 통하여 어떤 대책과 행동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족스트레스연구가 시작된 것이다(McCubbin, 1979). 최근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Angell(1936), Cavan & Ranck(1938) 그리고 Hill(1949)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이라는 주요한 사회적 사건의 결과로서 시작되었는데, Angell은 갑작스러운 수입의 상실로 인하여 가족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한 가족의 반응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가족의 통합과 적응성을 제시하였다. Holmes와 Rahe(1967)는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개념을 연결시킨 개발자로서 개인의 생활에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는 긍정적, 부정적 사건 모두가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는 가정하에 특정한 생활사건 발생시 요구되는 제

적용량으로써 생활변화량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생활사건은 개인의 생활에 변화를 주고 적용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정의되며 또한 개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불균형상태를 초래하며 평형을 되찾기 위한 재적용이 요구되므로 적용에너지의 수요가 증가된다. 이 때 인간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를 두고 흥(1997)은 가구주분리를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생활사건으로 보고 이것이 가족의 내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스트레스원을 분류해 보면 가족스트레스원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원(Chronic Stressors)과 상황적 스트레스원(Situational Stressor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양희, 1991). 만성적인 스트레스원으로서 가족구성원의 만성적인 질병, 빈곤 등을 들 수 있고, 상황적 스트레스원은 가족의 환경 내에서 발생한 최근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직, 이직,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것, 이혼, 별거 등을 들 수 있다. McCubbin과 그의 동료들은 가족스트레스원으로 느껴지는 일상생활사건을 비통례적 생활사건이라 하여 직업성의 스트레스 전근, 별거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원천이 가족의 외부적인 것인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것인가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적인 스트레스요인은 보통 사회적, 신체적 또는 기업환경 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해고, 거주지이동, 도시의 복잡한 환경, 작업 등 가정환경 외부의 요소들이며, 내적인 스트레스원은 개인적 또는 가족의 상황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그리고 Cater와 Mcgoldrick은 가족체계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해 수직적 요인과 수평적 요인을 들고 있으며(Cater & Mcgoldrick), 수직적 스트레스요인은 가족의 태도, 기대, 규칙 등을 말하며, 수평적 스트레스요인은 생활주기에 혼란을 가져오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분리를 외적인 스트레스요인으로 보고, 이것이 가족내부의 위기로 이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3) 가족체계적 접근

가족은 서로간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정한 방법으로 연결된 개인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개방체계이며, 가족성원들은 그 특수

한 집단을 위해 효과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발전시킨다(Miunchin, 1972). 가족 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가족의 역동적인 차원과 복잡성, 변화되는 상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Olson, Russell & Sprenkle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 또한 가족역동성을 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2차원으로 통합하였고, 체계 내적인 역동성인 두 차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돕는 촉진요인으로서 의사소통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의사소통은 인간행위의 한 형태로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반영적인 자아를 인식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Gross, Candoll & Knoll(1983)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가족관계에서 가족성원개 개인의 감정, 신념 그리고 태도와 관련된다고 하며, 이의 높은 점수는 그들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수준과 유형에 대한 자각과 만족을 반영하며, 낮은 점수는 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시키는데 작용하는 요구에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으로 대표되는 체계 내적 역동성의 유형은 가족성원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촉진되는 강화된 상호관계를 통하여 발달한다. Olson, Russell & Sprenkle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균형적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으로 이끌거나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이며,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을 비균형적으로 이끌거나 균형적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으로서의 이동을 저지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III. 연구문제

1. 연구문제의 설정

가구주분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Holmes.T의 사회적응평가척도를 사용한 김기태의 척도를 살펴봄으로써 가구주분리가 스트레스사건임을 추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분리가 가구주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며, 이 스트레스가 부부간의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및 적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반가족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이며,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응집성·적용성은 어느 정도이며, 가족응집성·적용성과 가족체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 인지한 부부의사소통은 어느 정도이며,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에 있어서 가구주의 스트레스에 따른 부부의사소통, 가족응집성·적용성은 어떠한가

(6)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에 있어서 가구주가 인지한 부부의사소통에 따른 가족응집성·적용성은 어떠한가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는 배우자, 자녀, 기타 다른 가족원들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생활하는 가구주를 말하며, 아내가 혼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가족은 제외하였다. 일반가족이란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그러한 가족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주분리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 아내 모두 30대가 각각 55.2%, 49.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남편, 아내의 학력은 각각 전문대졸 이상이 82.6%, 64.5%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남편, 아내의 직업은 각각 전문가가 39.0%, 5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년수는 1년-5년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월

수입은 151만원-200만원이 34.9%가 가장 많았으며, 본거지에서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는 자가 52.9%였고, 본거지에서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는 셋집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본거지에서 아내는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본거지 지역은 대구가 50.8%였고, 분거지 지역은 대전이 31.0%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부가 고학력이며, 맞벌이 형태로서 직업이 전문직이고, 월수입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가족의 경우는 남편, 아내의 연령이 30대가 각각 48.1%, 43.8%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 아내의 학력은 각각 전문대졸, 대졸이상이 75.2%, 57.6%로 많았고, 남편, 아내의 직업도 전문가가 39.1%, 41.7%로 많았다. 이들의 결혼년수는 1년-5년이 29.2%, 6년-10년 22.2%, 11년-15년 16.2%의 순이었으며, 월수입은 100만원-150만원이 37.3%, 151만원-200만원이 31.9%이었으며, 가족형태는 자가 59.9%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설문지는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용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용 2종류로 되어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가구주의 스트레스, 부부의 의사소통정도, 가족의 응집성과 적용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의 내용과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스트레스 척도는 관련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타당도는 요인분석으로 Kaiser의 기준에 따라 eigen value가 1 이상인 5개의 요인이 채택되었으며, 요인1은 고유치가 3.80, 요인2는 고유치가 3.80, 요인3은 고유치가 3.80, 요인4는 고유치가 4.02이며, 요인5는 고유치가 5.46으로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가구주 자신의 정신위생 및 시간 활용, 가족의식과 활동, 가정경제의 5가지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가구주의 스트레스 척도는 총 3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표 1> 가구주 분리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목	N (%)	항목	N (%)
남편의 연령	20세이상 29세이하 25(14.5)	총 월수입	100만원 미만 20(11.6)
	30세이상 39세이하 95(55.2)		100-150만원 56(32.6)
	40세이상 49세이하 38(22.1)		151-200만원 60(34.9)
	50세이상 14(8.1)		201만원이상 36(20.9)
	172(100.0)		172(100.0)
아내의 연령	20세이상 29세이하 56(32.6)	본거지 소유형태	자가 90(52.9)
	30세이상 39세이하 85(49.4)		전세 64(37.6)
	40세이상 49세이하 23(13.4)		월세 8(4.7)
	50세이상 8(4.7)		기타 8(4.7)
	172(100.0)		170(100.0)
남편의 학력	고졸이하 30(17.4)	본거지 소유형태	사택 26(15.1)
	전문대졸, 대졸 88(51.2)		독신기숙사 29(17.1)
	대학원졸 54(31.4)		회사에서 빌린 주택 15(8.8)
	172(100.0)		셋집 61(35.9)
아내의 학력	고졸이하 61(35.5)	동거인 유무	자가 28(8.8)
	전문대졸, 대졸 91(52.9)		기타 11(6.5)
	대학원졸 20(11.6)		170(100.0)
	172(100.0)	유	유아학생 67(39.0)
남편의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2(12.8)		녀
	전문가 67(39.0)	중학생 26(15.1)	
	기술공 및 준 전문가 39(22.7)	무	고등학생 19(11.0)
	사무직원 27(15.7)		전문대원생 16(9.3)
	서비스 근로자 4(2.3)		대학원생 5(2.9)
	및 시장판매 근로자 13(7.6)		기타 30(17.4)
	기타 13(7.6)		친정부모 25(14.5)
	172(100.0)		기타 8(4.7)
아내의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4.0)	본거지 지역	서울 54(31.5)
	전문가 74(59.2)		부산 5(2.9)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1(8.8)		대구 87(50.8)
	사무직원 28(22.4)		대전 2(1.2)
	서비스 근로자 7(5.6)		인천 2(1.2)
	및 시장판매 근로자 7(5.6)		강원도 1(0.6)
	125(100.0)		경기도 1(0.6)
결혼년수	1년미만 20(11.6)	본거지 지역	경상북도 9(5.3)
	1년이상 5년이하 62(36.0)		경상남도 7(4.1)
	6년이상 10년이하 35(20.3)		충청남도 1(0.6)
	11년이상 15년이하 21(12.2)		충청북도 9(5.3)
	16년이상 20년이하 13(7.6)		충청남도 22(12.9)
	21년이상 21(12.2)		충청북도 1(0.6)
	172(100.0)		충청남도 1(0.6)
			충청북도 59(2.9)
			제주도 2(1.2)
			171(100.0)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며, 총점수의 가능치는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까지 분포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가구주분리가족인 경우 Cronbach $\alpha = .80$, 일반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2) 노력정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는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총 35문항에 대해 설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수의 가능치는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표 2> 일반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목	N (%)	항목	N (%)
남편의 연령	20세이상 29세이하 33(17.8) 30세이상 39세이하 89(48.1) 40세이상 49세이하 49(26.5) 50세이상 14(7.6)	아내의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2.6) 전문가 48(41.7)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4(12.2) 사무직원 39(33.9) 서어비스 근로자 및 시장판매 근로자 7(6.1) 기타 4(3.5)
	185(100.0)		115(100.0)
아내의 연령	20세이상 29세이하 62(33.5) 30세이상 39세이하 81(43.8) 40세이상 49세이하 35(18.9) 50세이상 7(3.8)	결혼년수	1년미만 23(12.4) 1년 - 5년 54(29.2) 6년 - 10년 41(22.2) 11년 - 15년 30(16.2) 16년 - 20년 25(13.5) 21년이상 12(6.5)
	185(100.0)		181(100.0)
남편의 학력	고졸이하 46(24.9) 전문대졸, 대졸 88(47.6) 대학원졸 51(27.6)	총 월수입	100만원 미만 23(12.4) 100만원 - 150만원 69(37.3) 151만원 - 200만원 59(31.9) 201만원 이상 34(18.4)
	184(100.0)		185(100.0)
아내의 학력	중졸이하 12(6.5) 고졸 66(35.9) 전문대졸, 대졸 94(51.1) 대학원졸 12(6.5)	거주 형태	자가 109(59.9) 전세 61(33.5) 월세 1(0.5) 기타 11(6.0)
	184(100.0)		182(100.0)
남편의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2(12.2) 전문가 69(39.1) 기술공 및 준 전문가 29(15.5) 사무직원 28(15.5) 서어비스 근로자 및 시장판매 근로자 7(5.6) 기타 20(11.0)		
	181(100.0)		

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가구주분리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92$ 였고, 일반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92$ 로 나타났다.

(3)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의 의사소통은 Olson, Fournier & Druckman (1985)의 강화 (ENRICH)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을 변안,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구주가 지각한 의사소통정도로 파악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정도가 높다. 따라서 총 점수의 가능치는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까지 분포하며,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질문항목 수를 조정하기 위해 10항목 중 8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가구주분리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80$ 이었고, 일반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81$ 이다.

(4) 가족응집성·적용성

가족응집성과 적용성 척도는 Olson, Russell & Sprenkel(1985)이 제작한 “가족응집

성 및 적용성 척도(FACES III)”를 참고하여 한국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도록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가족응집성 및 적용성 척도는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한 15개 문항과 적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15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응집성 및 적용성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점수의 가능치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까지 분포한다. 응집성 척도의 신뢰도는 가구주분리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80$ 이었고, 일반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81$ 이었다. 적용성의 신뢰도는 가구주분리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78$ 이었고, 일반가족의 경우 Cronbach $\alpha = .79$ 이었다.

3.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예비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 문항을 수정하여, 1993년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대구를 중심

으로 한 지방대학, 지방연구소, 기업체, 금융기관, 학교, 관공서등에서 동질적 유의표집(homogeneous purposive sampling)을 하여 총 300 가족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질문지는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용이며, 설문지를 각 조사대상자가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배부하여 회수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여 수집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가구주분리가족이 190부, 일반가족이 205부였으며, 가구주분리가족의 경우 회수된 190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경우와 조사대상자인 아내가 혼자 다른 가족원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172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일반가족의 경우 205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18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점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백분율, 빈도분포, 평균, 표준편차를 적용하였다.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스트레스, 부부의 사소통, 가족응집성·적응성의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하였으며,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스트레스, 부부의사소통에 따른 가족응집성·적응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스트레스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비교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 스트레스 점수는, 최저점수 가능치 35점에서 최고 점수 가능치 175점 가운데 각각 평균 99.15, 92.50으로서 평균점수 가능치 10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분리가족 가구주와 일반가족의 가구주간에는 스트레스 경험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가 일반가족의 가구주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부부관계영역($P < .01$), 가족의식 및 활동($P < .01$), 가구주 자신의 정신위생영역($P < .01$),

부모-자녀관계($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가 일반가족의 가구주보다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홍:1997)와 같은 경향이다. 가족의식 및 활동, 가정경제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가 일반가족의 가구주보다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2.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의 노력정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가구주의 노력정도를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노력정도 점수는 최저 점수 가능치 35점에서 최고 점수가능치 175점 가운데 가구주인 경우는 108.99로서 평균점수 가능치 1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가족 가구주의 경우 104.12로서 평균점수가능치 105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와 일반가족의 가구주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가구주분리가족 가구주가 일반가족 가구주보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부부관계($P < .01$), 가구주 자신의 정신위생($P < .05$), 가족의식 및 활동($P < .001$), 가정경제($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가 일반가족의 가구주보다 노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가구주가 인지한 가족의 응집성 점수의 범위는 최저점수가능치 15점에서 최고 75점인데,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응집성 점수는 각각 평균 53.66, 53.57로서 평균점수 가능치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응집성, 적응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가구주분리가족 아내는 가족 응집성이 일반가족의 아내보다 높게 인지하고(홍:1997) 있는데 대해 가구주인 남편은 가구

<표 3>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스트레스 차이검증

변인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전체	가구주분리가족	123	99.15	15.03	3.62***
	일반가족	126	92.50	13.98	
부부관계	가구주분리가족	163	17.77	4.32	3.39**
	일반가족	166	16.22	3.06	
부모-자녀 관계	가구주분리가족	136	20.93	3.62	2.31*
	일반가족	144	19.95	3.43	
자신의 정신위생	가구주분리가족	157	18.79	3.17	3.26**
	일반가족	165	17.65	3.09	
가족의식 및 활동	가구주분리가족	149	53.66	6.95	.11
	일반가족	158	53.57	6.63	
가정경제	가구주분리가족	164	56.07	7.14	.61
	일반가족	168	55.59	7.17	

* p<.05 ** p<.01 *** p<.001

<표 4>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의 노력정도 차이검증

변인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전체	가구주분리가족	124	108.99	21.81	1.59
	일반가족	147	104.12	21.96	
부부관계	가구주분리가족	135	22.87	4.92	2.48*
	일반가족	148	21.38	5.20	
부모-자녀 관계	가구주분리가족	110	20.76	6.21	.11
	일반가족	131	20.68	5.58	
자신의 정신위생	가구주분리가족	133	20.41	5.81	2.36*
	일반가족	142	18.73	6.01	
가족의식 및 활동	가구주분리가족	134	24.10	4.68	3.56***
	일반가족	148	22.04	4.85	
가정경제	가구주분리가족	124	21.53	5.29	3.21**
	일반가족	147	19.52	5.02	

* p<.05 ** p<.01 *** p<.001

<표 5>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융집성과 적용성의 차이검증

변인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가족융집성	가구주분리가족	149	53.66	6.95	.11
	일반가족	158	53.57	6.63	
가족적용성	가구주분리가족	164	56.07	7.14	.61
	일반가족	168	55.59	7.17	

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융집성과 적용성의 수준비교

가족융집성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M±

1SD에 의거하여 4수준으로 나누었다. 가족융집성의 경우, 가구주분리가족은 분리, 연결이 각각 36.6%, 29.3%이고, 일반가족의 경우도 역시 분리, 연결이 각각 35.7%, 32.7%로 나타났고, 가족적용성의 경우 가구주분리가족은 구조화, 유연이 각각 35.6%, 34.9%이고, 일반가족의 경우도 구조화,유연이 각각 33.5%, 32.9%를

차지하고 있어 두 경우 모두 균형적인 가족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같이,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부부의사소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

<표 6>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비교

	수준	가주분리가족		일반가족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가족응집성	이탈	49이하	28(17.10)	48이하	27(16.1)
	분리	50-56	60(36.6)	49-56	60(35.7)
	연결	57-63	48(29.3)	57-64	55(32.7)
	연합	64이상	28(17.1)	65이상	26(15.5)
평균		56.07		55.59	
표준편차		7.14		7.17	
가족적응성	경직	47이하	26(17.4)	46이하	28(17.7)
	구조화	48-54	53(35.6)	47-53	53(33.5)
	유연	55-61	52(34.9)	54-60	52(32.9)
	혼란	62이상	18(12.1)	61이상	25(15.8)
평균		53.66		53.8	
표준편차		6.96		6.63	

5.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체계 수준비교

가족체계유형은 가족체계의 두 차원인 응집성, 적응성 점수 범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가족체계 유형은 가주 스트레스,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적응성과의 관계를 Olson의 곡선적 가설에 입각하여 각각 점수에 따라 '균형적 가족' '중간범위의 가족' '극단적 가족'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가주분리가족의 경우 균형집단이 48.3%, 일반가족의 경우 51.3%를 차지해 조사대상의 가족체계유형은 균형적인 가족체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체계 비교 (%)

가족체계유형	가주분리가족	일반가족
균형적인 가족	70(48.3)	79(51.3)
중간범위 가족	40(27.6)	34(22.1)
극단적인 가족	35(24.1)	41(26.6)

6.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의사소통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부부의사소통을 비교한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며, 가주가 인지한 부부의 의사소통 점수는 최저 점수가능치 8점에서 최고점수 가능치 40점까지인데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부부의 의사소통 평균점수는 각각 29.50, 29.02로서 모두 평균점수 가능치 2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의사소통 차이검증

변인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의사소통	가주분리가족	166	29.50	5.08	.88
	일반가족	172	29.02	4.95	

7. 가주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가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주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정도를알아보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주분리가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일반가족은 스트레스 수준 상, 중, 하에 따라 부부의 의사소통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즉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스트

레스가 높은 상과 중인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가구주의 스트레스수준에 따른 가족응집성·적용성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구주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적용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 모두 가구주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가족응집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p<.001), 스트레스가 낮은 중,하의 집단이 높은 상의 집단에 비해 가족응집성이 높았다. 그리고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 모두 가구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가족적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P<.05),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가족적용성이 높았다.

9. 부부의사소통에 따른 가족응집성·적용성

부부의사소통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적용성의 차이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의사소통수준을 상, 하로 나누어 가족응집성과 적용성을 살펴본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 모두 부부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이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용성에 있어서도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 모두 부부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이 가족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가 느끼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노력 정도, 부부의사소통 및 가족응집성·적용성이 어떠한가, 가구주의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부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적용성에 있어서 일반가족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가구주분리가족에 있어서 가구주분리라는 외적분리가 가족내부의 내적분리로 이어지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9> 가구주의 스트레스수준에 따른 부부의사소통

의사소통 스트레스	가구주분리가족				일반가족			
	빈도	평균	F값	Scheffe	빈도	평균	F값	Scheffe
상	19	27.95			20	26.15		a
중	79	29.97	2.60		85	28.34	8.96***	a
하	20	31.55			19	32.11		b

*** p<.001

a, b의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10> 가구주 스트레스수준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가구주분리가족				일반가족			
	빈도	평균	F값	Scheffe	빈도	평균	F값	Scheffe
상	25	50.48		a	17	51.00		a
중	73	56.20	4.64*		87	54.64	10.20***	b
하	20	62.50		b	21	60.14		b

*p<.05 *** p<.001

a, b의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11> 가구주 스트레스수준에 따른 가족적응성

스트레스 \ 가족적응성	가구주분리가족				일반가족			
	빈도	평균	F값	Scheffe	빈도	평균	F값	Scheffe
상	19	50.26		a	16	56.28		a
중	77	53.81	5.30*		87	53.24	5.82**	
하	22	56.91		b	21	49.88		b

*p<.05 ** p<.01

a, b의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12> 부부의사소통에 따른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 가족응집성	가구주분리가족			일반가족		
	빈도	평균	F값	빈도	평균	F값
상	85	59.31		89	59.26	
하	74	52.59	44.67***	77	51.36	70.53***

*** p<.01

<표 13> 부부의사소통에 따른 가족적응성 차이검증

스트레스 \ 가족적응성	가구주분리가족			일반가족		
	빈도	평균	F값	빈도	평균	F값
상	79	56.81		78	57.44	
하	65	49.94	44.20***	78	49.87	75.13***

*** p<.001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는 일반가족의 가구주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가구주가 인지하는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응집성·적응성 및 부부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가구주분리가족의 아내를 대상으로 한 홍(1997)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다. 가구주분리가족의 아내는 일반가족의 아내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 아내의 경우 가구주분리 가족이 일반가족에 비해 위기적 상황에서 가족내의 정신적 안정이나 항상을 유지하려는 기능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반해, 가구주인 남편은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에서 일반가족과 큰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는 일반가족의 가구주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으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에서 일반가족과 다름없이 적용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가구주분리라는 물리적 분리는 부부사이의 가족의 내적분리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분리라는 가족의 외적분리가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아내와 남편에게 작용하는 기제들을 좀 더 설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요인들의 인과적인 관계를 살펴 가구주분리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의 복지와 안녕을 생각한 기업의 인사시책의 마련과 더불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의식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와 일반가

족의 가구주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며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부부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홍:1997)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7>에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균형적인 가족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 가족의 가구주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나 가계의 부담 등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지방대학, 지방연구소, 관공서,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문직과 고학력자에 편중되어 있어, 모든 가구주분리가족의 가구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또한 1993년에 실시된 조사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최근의 자료들이 더욱 보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공세권(1990). 한국가정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김기태(1984). 위기개입론, 대왕사.
- 3) 김정옥, 박순희(1990),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 4) 김양희, 전세경(198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 1호, PP.25-42.
- 5) 김양희(1991). 가족관계학, 수학사.
- 6) 김태현, 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 가족연구: 지방과 해외근무지의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제 4호, PP.143-160.
- 7) 박숙자 (1991). 가족과 직업, 가족학논집 제3호, PP.143-160.
- 8) 송성자 (1987).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홍익제
- 9) 이광규(1990). 분거가족과 문제가족: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제, 장인협박사 정년기념논문집, PP333-352.

- 10) 이호미, 김숙희, 홍상욱(1995). 가구주분리가족 아내의 스트레스가 부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부설 자원문제연구소논집, 제 4권 제 1호, PP.27-39.
- 11) 이효재(1979). 산업화와 가족문제, 가족학논집, PP.3-10.
- 12) 이효재(1987). 가족과 사회, 경문사.
- 13) 전세경(198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14) 정기선(1985). 가족위기와 부부관계의 변화: 일시 해외취업가족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15) 정민자, 옥선화(1984).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제 1호, PP.79-92.
- 16)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가족학, 하우.
- 18) 홍상욱(1994). 가구주분리가족 가구주의 스트레스가 부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부설 자원문제연구소논집, 제 13권 제 1호, pp.193-205.
- 19) 홍상욱, 배옥현, 김태선(1997). 가구주분리가족과 일반가족의 아내스트레스,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적응성의 비교연구,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영남대학교 새마을지역개발연구소, 제22권. pp.85-100.
- 20) 松岡英子(1987). 單身赴任家族と 妻のストレス. 現代의 에스プリ, PP.137-150.
- 21) 笠原敏彦(1988). 單身赴任의 諸問題.
- 22) 田中佐子(1991). 單身赴任의 研究, 中央經濟社.
- 23) 鈴木之史(1986). 單身赴任의 스트레스와 家族問題, 現代의 에스プリ, PP.128-141.
- 24) 労働行政研究所 (1981). 轉勤をめぐる 各種手當と 取り扱い의 實態, 勞政時報, PP.2-70.
- 25) Adams, P.(1984). Fatherless children, A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 26) Angell, R.D.(1936) The family encounters the depression, New York: Charies Scribner.
- 27) Boss, P.G.(1980). Normative family stress: Family Boundry changes across the life-span, family relations, 29.

-
- 28)Boss,P.G.(1987). Family Stres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 29)Olson,D.H.(1985).Family inventory, Family Social Science.
- 30)Gerstel, N.Rr (1977). The Feasibility of Computer Marriage, in P.J.Stein, J. Richman, & N. Hannon, The Family: Functions, Conflicts and Symbols, Mass, Addison-Wseley.
- 31)Gross, Hh.E. (1980). Dual-Career couples who live apart: Two types, 42(3): 567-576.
- 32)Hill,R.C.(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 Row.
- 33)Holmes,T.H. & Rahe,R.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II*.
- 34)McCubbin,H.I.(1979). Interg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2)